# "불교의 미래 '교육'에 달려있다"

불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종서박사가 쓰는

## 불교와 교육 〈26〉

###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종교인구가 월등히 많다 그러나 종교교육 여건은 오히려 뒤처지는 상황"

흔히 교육을 국가 백년의 대계라고 한다. 이 말은 오늘의 교육의 모습이 내일의 국가 발전에 직결된다고 풀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종교 교육에 해당시켜 보면 '종교 교육은 종교 백년의 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늘의 각종 종교가 교육에 힘쓰는 정도에 따라 그 종교의 미래 발전이 결정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교육에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이 있다. 형식교육에서는 입학조건, 수학년한, 배우는 내용 등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서, 졸업증서 등이 수여되고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다. 형식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학교이다. 비형식교육은 학교교육(형식교육)을 제외한 일체의 조직적, 비조직적 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비형식교육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말한다.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단기 및 장기의 교육 프로그램,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각종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성인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종교 교육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양면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교육은 형식교육보다 비형식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찰이나 불교 단체에서 하는 비형식교육은 불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형식교육보다 훨씬 그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형식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학습동기가 훨씬 강하다.

이러한 비형식교육의 실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교육대상자가 많을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나라는 불교 신도가 타종교에 비하여 훨씬 많다. 특히 1996년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30대의 불교신도는 전체의 46.8%인 208만6천62명으로 가장 많고 기독교(37.6%, 167만7천771명), 천주교(13.3%, 59만2천257명), 유교(0.5%, 2만천526명), 원불교(0.3%, 1만3천754명), 기타(1.5%) 등의 순위이다.

이렇게 볼 때 비형식적 종교 교육의 자원은 타종교에 비하여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사찰에서의 종교 교육이 기독교에 비하여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때 한숨이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앞이 암담해진다.

서울의 모 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기독교 교육의 모습을 보면 그 계획성과 조직성과 방대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대상자를 분류하여 영아부(주로 부모교육),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1부(1학년 아동), 초등2부, 초등3부, 초등4부, 초등5부, 초등6부, 중등1부(중학교 1학년), 중등2부, 중등3부, 고등1부(고등학교 1학년), 고등2부, 고등3부, 대학부, 청년부(대학 비진학자), 예신부(예비신랑신부), 새가정부(신혼부부), 새가족부(새롭게 교인이 된 가정)로 나누고 있다. 이들 각 부의 교원들은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수시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교재도 각 부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체제는 불교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유아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로 세분했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교회에 올 때 어린 자녀를 반드시 데려오도록 강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다. 어릴때의 종교적 체험은 평생 동안에 걸친 신행생활(信行生活)과 직결된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사찰에 가면 사찰의 고요함과 엄숙함을 깬다고 하여 사찰에서 싫어하는 경향마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은 형식교육인 학교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자.

1997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총수는 9천5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국·공립유치원이 4천422교이며 사립유치원이 4천583교이다. 사립유치원 중 기독교 계통인 개신교에서 설립한 유치원이 504교이고 천주교는 213교이며 계 717교이고 이는 전체유치원의 8%, 사립유치원의 15.6%에 해당한다. 그런데 불교 계통에서 설립한 유치원은 186교이고, 이는 전체 유치원 수의 2%이고 사립유치원의 4%에 불과하다. 기독교 계통 유치원의 4분의 1정도이다. 그리고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3천409교인데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 계통의 유치원 교육은 기독교 계통의 유치원 교육에 비하여 말할 수 없는 열세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 계통의 유아교육이 얼마나 미미하며 이렇게 열세에 있으면서도 이 나라 미래의 불교는 현재보다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할 수 있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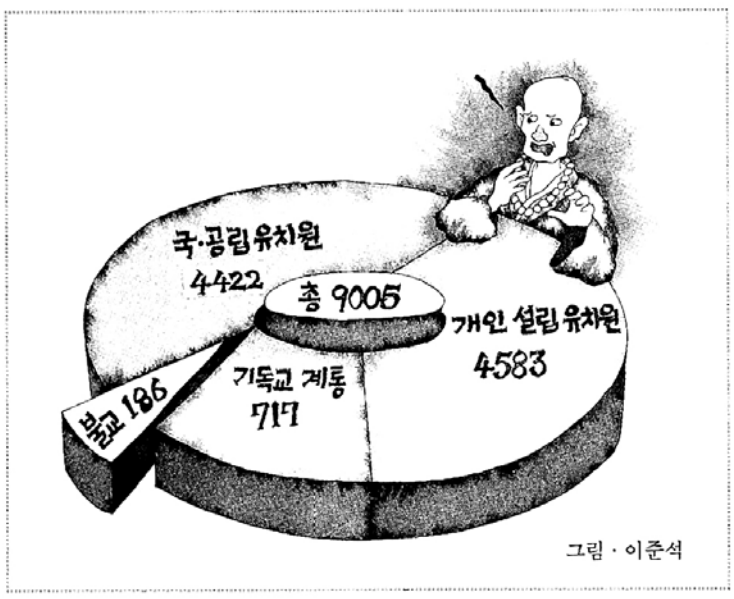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 어릴때 종교적 체험 평생 신행과 연결
### "사찰은 비형식 불교교육에 나서자"

다음은 초등학교를 살펴보자. 초등학교는 총 5천721개교이며 이중 사립초등학교는 1.3%인 76개교에 불과하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바 없지만 이 적은 수의 사립초등학교 중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사립초등학교가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통계가 없어서 전국의 현황은 알 수 없지만 서울의 경우 39개 사립초등학교 중 3개교는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하였으며 여타의 상당수의 사립초등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재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전국의 통계치는 알 수 없으며 서울의 경우만 살펴보면 중등학교 총수 629개교 중 사립중등학교는 49%인 311개교이다. 이 사립중등학교 중 기독교에서 설립한 중등학교는 32개교이고, 이는 전체 사립중등학교의 10.2%이다. 그런데 불교 계통에서 설립한 사립중등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사립중등학교의 상당수가 기독교 계통의 분위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수성이 강하고 종교적 사고에 열중하는 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불교 교육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은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와 같다.

◇대학현황 (1997.4)

| 기독교계통 | | | | 불교계통 | | | |
|---|---|---|---|---|---|---|---|
| 학과수 | | 학생수 | | 학과수 | | 학생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 111 | 91.7 | 20,828 | 95.0 | 10 | 8.3 | 1,101 | 5.0 |

◇각종학교현황 (1997.4)

| 기독교계통 | | | | 불교계통 | | | |
|---|---|---|---|---|---|---|---|
| 학과수 | | 학생수 | | 학과수 | | 학생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 53 | 98.1 | 5,953 | 97.6 | 1 | 1.9 | 107 | 2.4 |

※불교계통은 중앙승가대학교 2학년이상을 말함.

◇대학원현황〈석사과정〉 (1997.4)

| 기독교계통 | | | | 불교계통 | | | |
|---|---|---|---|---|---|---|---|
| 학과수 | | 학생수 | | 학과수 | | 학생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 133 | 94.3 | 9,462 | 97.4 | 8 | 5.7 | 253 | 2.6 |

※전문대학원 포함.

◇대학원현황〈박사과정〉 (1997.4)

| 기독교계통 | | | | 불교계통 | | | |
|---|---|---|---|---|---|---|---|
| 학과수 | | 학생수 | | 학과수 | | 학생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실수 | % |
| 17 | 81.0 | 134 | 67.7 | 4 | 19.0 | 64 | 32.3 |

고등교육 현황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독교 교육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대학은 학생수에 있어서는 19분의 1이며, 각종학교는 56분의 1이고 대학원 석사과정은 37분의 1이며 박사과정은 2.1분의 1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박사과정의 학생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불교의 교육은 강원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수행과 교육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수 같은 것은 개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을 참회라고 한다. 참회가 이루어지면 용서를 받는다.

참회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로 참(懺)과 회(悔)로 분리해 파악해야 한다. '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참는 것이고 '회'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과 보살님 또는 스승과 윗분에게 지은 죄를 고백한 다음 사죄를 구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매달 보름날을 참회의 날로 정해 대중이 모여 지난달 지은 죄를 참회했다. 이날을 포살일(布薩日)이라고 한다. 안거가 끝난 마지막 날에는 안거기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공개 참회하기도 했다. 이날을 자자일(自恣日)이라고 부른다.

참회

### 참(懺) - 죄를 용서받기위해 참음
### 회(悔) - 부처님께 죄를 고백함

참회는 크게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으로 대별한다. 이참은 지은 죄의 실상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 참회를 말하고, 사참은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참회의 진언을 외우는 등 행위와 동작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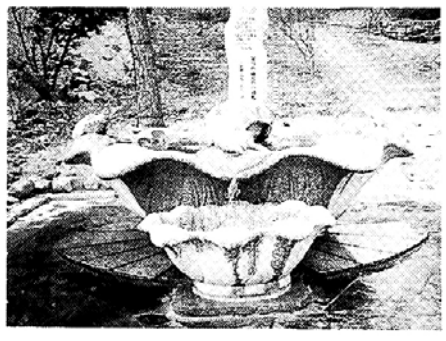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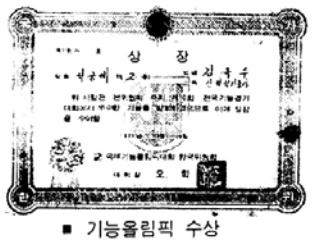
절해서 참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논서로 당나라 선도스님이 저술한 〈왕생예찬(往生禮讚)〉이 있다. 〈왕생예찬〉에 의하면 상품(上品)참회는 눈에서 피가 흐르고 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참회다. 중품(中品)참회는 눈에서 피가 나오고 털구멍에서 뜨거운 진물이 내리는 참회다. 하품(下品)참회는 눈과 코에서 피가 나오는 참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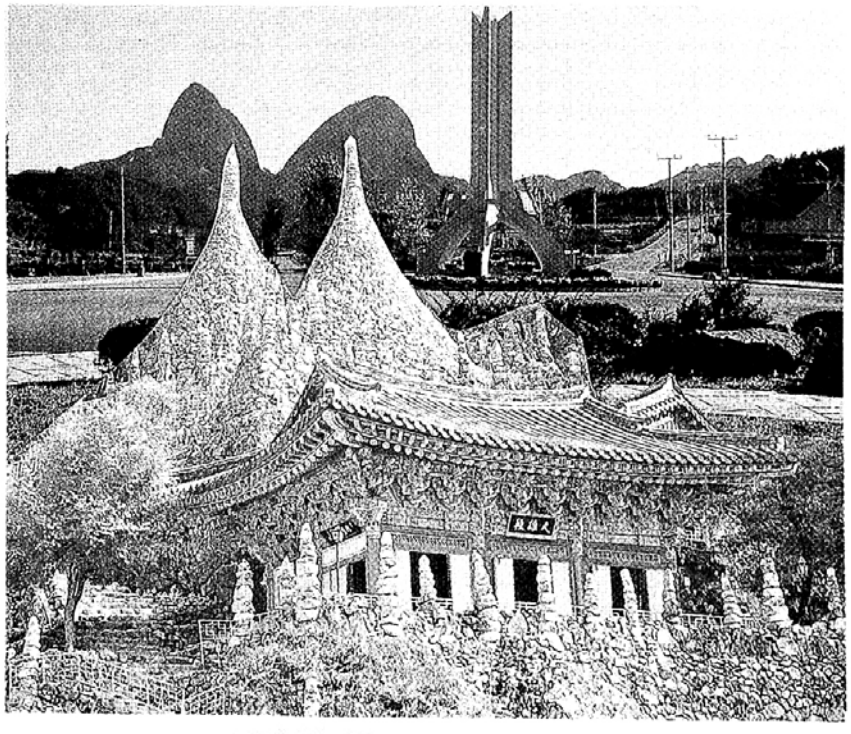
하루에 3천배를 하고서는 눈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다. 과연 참회란 얼마나 무서운 결심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새삼 부끄러움을 느낀다. 참회와 용서의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참회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무거움을 느낀다. 지난 세월의 과오를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날의 죄와 악을 짓지 말자는 각오와 수행이 더욱 절실하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도서를 제외한 영화, 영상, 음반, 공연 예술 등 다방면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권 판매 실시!
직방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37-0086, 732-1321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